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선조들의 애국충정이 깃든 동금강암

평양시교외에 고려시기 세워졌다는 동금강암이 자리잡고 있다. 동금강암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봄계절과 함께 한껏 부풀어올랐다. 주변의 경치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며 우리는 옛 사찰인 동금강암에 이르렀다.

동행한 림금성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은 동금강암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주변의 경관이 금강산의 경치에 못지 않다고 하여 동금강암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이었다.

《동금강암은 고려시기 당화부락(동금강암밑에 있던 부락)에 있던 자비사가 불에 탄 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밑에 들어앉은 동금강암은 그후 다섯번이나 고쳐지었는데 본채와 칠성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익공식합각 집으로 된 동금강암본전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갔다.

《동금강암의 본전은 높이는 바위를 뒤에 두고 앞으로는 경사진 자연지세를 리용하여 터를 잡았습니다. 앞면에는 2단으로 기단을 높직하게 쌓고 좌우측면과 뒤면에는 조금 낮게 1단으로 조성한 다음 그우에 건물을 앉혔습니다.》

그의 해설을 들으며 본전을 돌아보느라니 건물의 앞면 4칸 중에서 오른쪽 끝은 부엌으로 되어있고 왼쪽3칸은 퇴마루가 있는 온돌방으로 되어있었다.

본전의 가운데칸 불단안에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었다. 아미타여래의 좌우에 동으로 만든 초대 2개가

있었고 《평양부 염전리》라는 글이 새겨진 세발향로가 놓여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원래 불단우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있었는데 묘향산 보현사에 옮겨가고 그대신 아미타여래좌상이 들어앉았다고 한다. 불상뒤에는 관음보살후불행화가 걸려있었다.

일행은 퇴마루가 달린 합각집모양의 칠성각도 돌아보았다.

《이 건물을 칠성각이라고 불렀지만 원래는 매 경간마다 간막이를 하고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니다.》

림금성실장이 하는 말이였다.

칠성각의 뒤쪽으로는 가파로운 절벽이 솟아있었다. 아찔한 벼랑이 칠성각의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서있는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이곳에서 인진조국전쟁시기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왜적을 쳐물리치기 위한 묘한 계책을 세우고 원수놈들을 죽이는데 필요한 활촉들을 만들어냈다. 이는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비록 요란한 건물은 아니였어도 동금강암은 나라를 지키려는 승병장들과 우리 선조들의 애국충정이 깃들어있는 곳이었다.

장속영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4.25 체육단 축구선수 김명순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된 4.25체육단 축구선수 김명순은 로련한 문지기로서 지난해에 진행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여자 1부류 축구경기과 2020년-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1부류 축구경기에서 4.25팀이 각각 1위를 생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고 육체적조건이 뛰어난 그녀는 유년성훈련과 조약훈련, 반용속도를 높이는데 많은 힘을

넣었다. 피라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2016년 국제축구연맹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축구선수권대회, 제30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 등에서 정확한 판단과 빠른 결실책, 날렵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실적으로 이어질수 있는 공들을 책임적으로 막아내어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골도 허용하지 않은 문지기로서 대회최우수문지기상을 수여받았다.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4.25팀은 실적이 제일 적은 팀으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것은 김명순이 팀의 골문을 믿음직하게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1부류축구경기에서 최우수문지기상을 받았다.

본사기자

농업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성과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식물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농업생산이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논벼의 전생육기간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앞당길수 있는 논벼수경제배장치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염기전달성, 추위견딜성증가들을 육성하였다.

이들의 연구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재해성이상기후견딜성 벼종자들을 극한조건에 견디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고있는 것이다. 또한 추위견딜성증가들을 도입하여 농촌에서 긴장한 비닐박막을 쓰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모내기를 진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새 품종의 종자를 도입함으로써 재배품종 파종때보다 불리한

일기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안전한 소출을 벌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논벼의 생육기일을 앞당기고 알곡사이 결합시일문제를 해결하여 알곡 대 알곡 2모작재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새로운 품종의 벼종자들은 간석지와 바다를 끼고있는 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 도입되어 호평을 받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도입된 종자들에 대한 품종비교시험도 진행하면서 선발된 종자를 과학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거둔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연구사들은 가물견딜성종자, 침수견딜성종자, 계분원집기술에 의한 다수확논벼에 대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불리한 재해성이상기후를 이겨내고 알곡생산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인종로리 김구이

김구이는 김우에 소를 놓고 그우에 다른 김을 덮은 다음 구워 만든 요리이다. 김에는 여러가지 미량원소와 비타민류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리롭다. 또한 향기롭고 맛이 독특하여 김밥, 김종죽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김구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김 6장일 때 소고기 100g, 목두나물 50g, 깨소금 1g, 간장 5g, 참기름 30g, 파 15g, 밀가루 20g, 후추가루 0.5g을 준비한다.

소고기는 보드랍게 다져 파, 간장, 후추가루로 양념하여 볶아놓는다.

목두나물은 베쳐 잘게 썬 다음 볶은 소고기, 다진 파, 간장, 깨소금, 후추가루, 참기름, 밀가루와 같이 반죽한다.

김을 펴고 그우에 소를 놓은 다음 다른 김을 덮고 참기름을 두른 구이판에서 구워낸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김구이가 완성된다.

본사기자



속담과 유래 송도 외장사

고려시기 송도(오늘의 개성)에 한 외(참외)장사가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외값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외를 한바리 가득 싣고 서울로 갔으나 그사이 거기서도 외값이 폭떨어졌다.

이걸 어찌하나 걱정하는 데 이번에는 의주에서 외값이 엄청나게 높다는 말을 들었다. 그대 외장사는 부랴부랴 의주에 갔으나 여기서 역시 그사이 외값이 폭떨어졌다.

《가루팔러 간 날 망할 놈의 바람질이라더니 가는 곳마다 이 꼴이냐!》

맥이 타 풀러 송도로 돌아와 외를 헤쳐보니 글썽 서울로, 의주로 다니는 사이 외는 몽땅 썩어문드러져 냄새가 코를 찌렀다.

이 일을 계기로 《송도 외장사》라는 속담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리를 보려고 하다가는 랑패를 보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사화 울바른 효도 (1) 글 엄창도, 그림 채대성

고려 명종왕시기 나라의 도읍인 개경에서 있는 일이다. 어느해 봄날 해가 서쪽으로 서서히 기울고있는데 후리후리한 키에 역세계 생김 군중이 긴 창을 손에 들고 개경성의 동대문을 나서고있었다. 김의원이라고 하는 총각 군중이었다.

개경에서 동북으로 20여리 떨어진 험한 화장산을 향해가는 그는 기쁨에 넘쳐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화장산에는 곰이 살고있었다. 지금의 내가의 벼들 개지가 한창 피어나는 이른 봄철이어서 겨우내 구세먹은 나무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잔 곰이란 놈이 밖으로 기어나올 때인지라 손에 익은 창으로 곰을 쫓아내면 곰열을 쉽게 얻을수 있을것이다.

그 곰열로 십년나마 고생하는 어머니의 허리병을 쫓아내고 고쳐드릴수 있을것인줄 어머니가 참기 어려운 허리병을 털어버린다면 다 소나마 자식된 효도를 다

하는것으로 될것이 아니겠는가.

긴 창을 들어쥐고 씩씩 씩씩 걸음을 옮기는 김의원의 눈앞에는 자기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던 어머니의 지난날이 선히 떠올랐다.

아마도 자기처럼 어머니에게 속거나 태운 자식도 쉽지 않을것이었다. 그가 강보에 싸여있을적에 변방에 기여든 오랑개군과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잘못되자 그는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다.

남달리 벌찬 그는 어려서부터 어찌나 장난이 세찬지 다른 아이들보다 몇곱절이나 질신과 옷을 헤뜨렸다.

날마다 동네아이들을 휘둥하여 무사놀이를 한다며 하루에도 몇번씩 마을뒤의 룡수산을 오르내렸고 쯤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그릇된 버릇을 배우고 있었다.

부자집녀들은 자기네 자식들과 돌아가며 싸우는 어린 김의원을 가리켜 타고난 불쌍놈이니 싸움질밖에 모른다고 저러다 못매맞아 죽게

된다느니, 예비없는 후례자식 망종되어 집안을 망하게 할거라느니 하고 쌍욕을 퍼부어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김의원의 어머니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무사놀이고 싸움질이고 그만두지 못하겠느냐며 도리어 어린 자식에게 매를 들곤 하였다.

어린 김의원은 매를 드는 어머니에게 무사놀이를 하는것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원수값을 힘을 키우는 것이고 부자집사들과 지지 않고 주먹질을 하는것은 덜어놓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그릇된 버릇을 배우는것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어린 김의원의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어머니는 아들들을 이웃마을의 글방선생에게 맡기었다.

한생을 글방에서 늙은 선생은 사나운 말에는 특별히 할말을 지운다면서 불의

한걸 보면 참지 못하고 싸우려드는 김의원의 좋은 장점을 헤아려 그에게 글공부와 함께 무술도 배워주었다.

엄격한 글방선생의 슬하에서 글도 배우고 활쏘기며 창세기, 수박회와 같은 무술도 담은 김의원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군사가 될 꿈을 품게 되었다.

하여 김의원은 17살 나던

올정초에는 아버지가 있던 변방의 군진으로 자진해가려 했는데 어머니의 허리병이 더 심해져서 운신할수 없게까지 되었던것이다.

그동안 김의원이 허리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때문에 마음울 쓰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허나 어머니의 허리병은 어찌나 고질인지 그가 지어다 준 여러가지 초약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면서 귀맛도는 비결을 알려주었다.

어머니의 허리병을 제격 고쳐드릴 비결을 안 김의원은 사기가 나서 고향마을로 찾아갔다.

외할아버지의 묘를 파서 산수좋은 명당자리로 떠옮기면 허리병도 뻘수 있고 온 집안 에 복도 든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뻐할 대신 도리머리를 하였다.

김의원은 그날 자기의 손을 잡고 들려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을것같았다.

김의원은 동북쪽으로 펼쳐진 큰길로 접어들었다.

동강(림진강)으로 흘러내리는 마미천기슭을 따라 뻗어간 이 길은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큰길이다. 바로 이 길 이 토산고을을 거쳐 고려의 최북단인 동계(오늘의 함경남북도, 강원도 북부일대)로 뻗어나간다.

옛적에 윤관이라는 장수가 거느린 20만대군이 바로 이 길로 해서 동계에 출진하여 변방을 수란케 하던 외적을 몰살시키고 두만강 건너의 선춘령에다 국경보루를 일떠세웠다.

옛 군사들의 자취가 어렸는 큰길을 따라 걸음을 재우치며 김의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주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았다.

본사기자



해에 경군(중양군)의 군사로 될수 있었다. 군사가 된 김의원은 보다 더 뛰어난 무술을 연마하려 땀을 많이 흘렸다.

무슨 재주든 마음먹고 달려붙어 배우면 될수 있음을 확신한 그것기에 인차 무술시합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수 있었다.

그때문에 안락가와하는데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능히 짐지해줄뿐더러 질병같은 재앙거리도 물리쳐주는 신통한 점점사가 부산동에 살고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한달음에 달려가 점점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는 잘못 쓴 조상묘때문에 입은 앙화로 어머니가 허리병에 걸렸